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주택 개보수 사업 실시	행재정·교육	세계 최대 규모의 '시각장애청소년관현악단'을 키워낸 특수학교
문화·관광	'빛의 축제'를 통해 구(舊) 산업지역의 새로운 지역 정체성 형성	환경·안전	관광지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통합배출 관리 개선사업 시행
산업·경제	향후 성장을 위한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에 박차 가해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로스엔젤레스 김민희
시카고 강기향
올랜도 박혜진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시아·아프리카〉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뉴델리 박원빈
자카르타 박효택
광저우 박재현
베이징 손지현
충칭 모종혁
칭다오 강경이
나이로비 한 울

〈유럽〉

암스테르담 장한빛
베를린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바르셀로나 진광선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파리 김나래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주택 개보수 사업 실시

중국 칭다오市 / 사회·복지

칭다오市는 주택 내부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생활 편의 기능을 높이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주택 개보수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주거환경 안정성과 편의성 향상을 도모

배경 및 목적

- ‘중국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동안 중국의 각 지역은 ‘장애인 계층의 빈곤 극복 및 삶의 질 개선, 평등한 권리 실현’이라는 기조 아래 세부 방안을 마련 중
 - 각 지역별로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제도의 다중화,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강화, 장애인 기본 공공서비스 체계 완비, 장애인의 교육 수준 제고 및 취업률 제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도 확대,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칭다오市는 장애인 주거환경의 최적화 및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주택 개보수 프로젝트를 적극 실시
 - 2025년까지 장애인 주택 2,000가구에 대해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배리어 프리’ 주거환경 범위를 확대할 계획

주요 내용

- 배리어 프리 주택 개보수 프로젝트 신청 가능자는 칭다오市에서 발급한 장애인증을 소지한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 신체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신체 장애인
 - 한 가구 내에 장애인이 2명 이상이 있거나, 장애인이 중복 장애를 가졌거나, 고령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
- 진행절차: 주택 개보수 신청 → 신청내역 검토, 확인 및 선정 → 시공 → 시공 검수 및 만족도 평가 → 시공비 지급(시공비는 각 區와 市에서 부담)
 - 주거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장애인연합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산둥성(山東省) 장애인 서비스망(<https://service.sddpf.org.cn>)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

- 관할 지역의 장애인연합회와 마을위원회가 신청 내역에 대한 검토와 실사를 진행한 후 요건에 부합하는 시민을 대상자로 선정
- 각 匸에서 장애인 가정의 실제 수요와 현황에 근거하여 정부 구매 서비스 방식을 통해 제3자에게 시공을 위탁
- 주거환경 ‘배리어 프리’ 개보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공 전 단계에서 전문 진단팀을 구성해 해당 가정의 실질적인 상황(장애인 성별, 장애 정도, 장애 유형, 특별한 고려사항, 소재지 등)을 파악, 과학적인 평가에 근거해 주택 개보수 내용을 확정
 - ‘맞춤형 설계, 스마트화 설계, 통합 설계’를 원칙으로 스마트 가구, 자동화 설비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배리어 프리 환경 조성, 장애인 보조기기와의 효율적인 연동 실현, 장애인 주거환경의 질적 제고 등을 추진
 - 하반신 장애인 가정의 경우 장애 정도, 활동 범위, 본인 의사, 행동 패턴 등에 맞추어 주방/화장실/욕실/침실 등 기본 공간의 맞춤형 개보수, 주거환경 장애물 제거에 중점을 둠
 - 예: 주택 내 단차(段差) 제거, 실내 바닥 평탄화, 문 교체, 경사로 조정, 좌변기 손잡이 설치, 음성 인식형 높이 조절 세면대 설치,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문턱 제거 및 문 폭 확대, 주 활동구역에 벽면 손잡이 설치, 부딪힘 방지 패널(panel) 설치 등
 - 주방에는 긴급 호출 벨, 단일 레버형 수전(水栓), 감전 방지 장치, 가스 누출 경보기, 높이 조절이 가능한 싱크대/조리대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시각장애인 가정의 경우 주 활동구역의 바닥 평탄화, 화장실 개조 작업을 비롯해 손잡이, 가스 누출 음성경보기, 유도블록, 음성 인지 가능 인터폰,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스크린리더기, 음성 인식 스위치 기능이 있는 생활용품 등을 제공
 - 청각장애인 가정은 불빛 알림 기능이 있는 인터폰(혹은 화상 인터폰), 진동 알람(alarm) 시계 등을 별도로 제공하고, 발달 장애인 가정의 경우 실내 전원선 개선, 안전망 설치, 비밀번호 설정형 공구함 설치, 위치 알림 팔찌 제공 등 거주환경 내 위험 요소 제거에 중점을 둠

정책 평가

- 칭다오市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배리어 프리’ 주택 개보수 사업은 장애인 정주환경의 안정성과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행동 패턴, 특수 목적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설계가 진행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일상생활 향유를 위해서는 주거 편의 향상과 더불어 장애인친화형 환경 조성 및 이동 편의성 강화 정책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https://baijiahao.baidu.com/s?id=1733714754443126900&wfr=spider&for=pc>

http://qingdao.sdnews.com.cn/xwzx/202205/t20220524_4031766.htm

<https://www.163.com/dy/article/H85G8GUE0550BD8K.html>

강경이 통신원, jiongli1011@naver.com

‘빛의 축제’를 통해 구(舊) 산업지역의 새로운 지역 정체성 형성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문화·관광

도시재생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지로 재탄생한 바르셀로나市의 구(舊) 산업지역 포블레누(Poblenou)에서는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바르셀로나 빛의 축제’(LLUM BCN)와 지역 문화 주체들의 공동체 ‘Poblenou Urban District’ 등을 통해 첨단산업과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확립

포블레누(Poblenou) 지역의 ‘빛의 축제’ 개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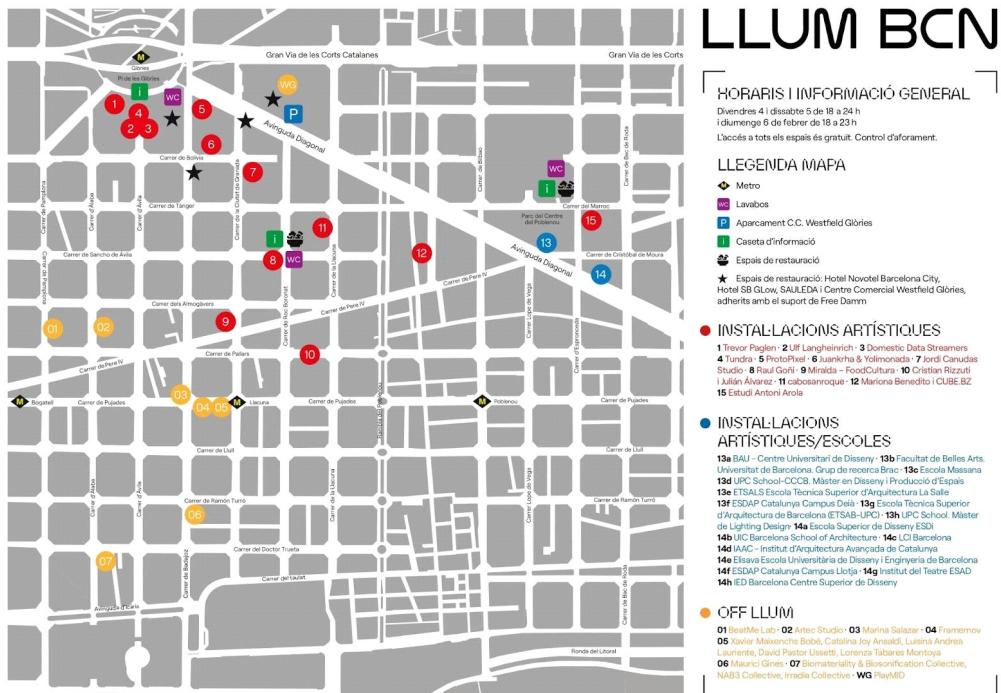
- 도시의 중심산업 변화에 따라 구(舊) 산업지대 쇠퇴
 - 바르셀로나에서는 20세기 초까지 방직 산업이 발달했으며, 그 당시 방직 공장들이 다수 밀집해 있던 공장 지대가 현재의 포블레누 지역임
 - 방직 산업이 쇠락하고 공장들이 도시의 외곽 지대로 이동하면서 포블레누 지역에 빈 공장 건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지역이 쇠퇴
- 쇠퇴한 구(舊) 산업지대가 도시재생의 중심지로 변화
 -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준비하며 도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도시 재개발 및 재생 계획의 대상 중 하나로 포블레누 지역에 대한 1차 재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2000년대 초반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계획인 22@ 프로젝트가 포블레누 지역을 관통하여 진행되면서 포블레누 지역은 바르셀로나의 미래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재탄생
 - 또한 포블레누 지역의 폐공장을 예술가들에게 임대하여 예술가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실험적인 예술활동의 상징으로서 포블레누를 인식하게 함
 - 포블레누 지역은 바르셀로나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고, 해변가에 위치해 있어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젊은 인재들과 실험적인 젊은 예술가들이 주로 거주하게 되면서, 구(舊) 산업지대의 생산직 종사자들에서 새로운 첨단 산업 종사자들로 지역 주민들의 구성이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역의 정체성이 변화하기 시작
- 도시의 가장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 정체성이 형성
 - 바르셀로나 시의회에서는 도시의 전통적인 겨울 축제인 산타 에우랄리아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12년 예술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빛의 축제 ‘LLUM BCN’을 바르

셀로나의 구시가지인 씨우닷베야 지역에서 진행

- 축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마다 행사를 진행해오다가, 점점 더 행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구시가지 지역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2018년부터 포블레누 지역에서 LLUM BCN 축제를 개최
- LLUM BCN 축제가 포블레누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행사의 성격이 보다 실험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

빛의 축제(LLUM BCN) 개최 목적

- 도시의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전통과 빛을 도시의 주인공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표현기법을 결합하여 도시의 상징적인 건물과 오픈스페이스 등 다양한 도시 공간을 변형함으로써, 도시와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형태와 도시의 의미를 탐구



[그림] 2022년 LLUM BCN 축제의 시설물 및 작품을 안내하는 지도

‘빛의 축제’의 운영 및 참여 방식과 지역단체와의 협력 방식

- 축제 일정과 장소 및 규모
 - 일정: 매년 2월 초·중순 3일간 오후 6시~밤 12시(2021년에는 예외적으로 11월 초에 개최)
 - 장소: 바르셀로나 첨단산업지구 22@의 상징인 ‘토레데 글로리에스’를 포함한 포블레노 지역 일대
 - 연도별 참여 단체 규모: 2019년(예술가 23개 팀, 학생 15개 팀), 2020년(예술가 25개 팀, 학생 17개 팀), 2021년(예술가 15개 팀, 학생 16개 팀), 2022년(예술가 13개 팀, 학생 16개 팀)
- 작품의 형태 및 작업 대상
 - 작품의 형태: 설치물, 영상 상영, 쇼
 - 작업 대상: 야외 공공공간, 건물의 내·외부 공간 등
- 2022년 축제 때의 주요 작품은 다음과 같음



[사진] 야외 공공공간 작품 사례: 포블레노 중앙공원 설치 작품 (2022년, 작가: UPC)



[사진] 건물 외부공간 작품 사례: 바르셀로나 디자인하브 건물 외관을 활용한 작품 (2022년, 작가: Trevor Paglen)



[사진] 건물 내부공간 작품 사례: 바르셀로나 역사박물관 (2022년, 작가: Antoni Arola)

- 축제 운영 및 참여 방식
 - 축제를 운영하는 부서는 市 문화부
 - 앱을 통해 축제 장소 지도 및 작품에 대한 설명 등 축제 정보를 제공
 - 축제 내용을 구성하는 작품의 디자이너는 프로 예술가 그룹과 디자인/건축/예술 등 관련 학교 학생 등 두 그룹으로 나뉘어 구성
 - 축제장 입장은 모두 무료이며, 장소에 따라 입장 인원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음
 - 축제 기간에 설치되는 시설
 - 화장실 및 안내소, 푸드트럭 등 설치, 운영
- 포블레노 지역의 문화예술 공동체와 ‘빛의 축제’의 협력 방식
 - 포블레노 지역의 다양한 문화 주체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단체인 문화예술 공동체 ‘Poblenou Urban District’는 바르셀로나 시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후원을 통해 해마다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포블레노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개최
 - 지역 예술가들의 공방(工房), 상점, 식당 등을 소개하는 루트를 만들어 ‘OFF LLUM’이라는 이름으로 축제에 참여

정책 평가

- ‘바르셀로나 빛의 축제’(LLUM BCN)는 공공예술이 지역 문화공동체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사례
 - 젊은 예술가와 학생들에게 축제를 통해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

<https://www.poblenourbandistrict.com/es/>

<https://www.barcelona.cat/llumbcn/es/>

https://elpais.com/ccaa/2018/02/08/catalunya/1518104565_194095.html

향후 성장을 위한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에 박차 가해

중국 충칭市 / 산업·경제

중국은 경제성장의 핵심 패러다임을 ‘투자’에서 ‘소비’로 바꾸기 위해 2021년 ‘국제소비중심도시’를 육성·건설하기 위한 5개 도시를 선정. 이 5개 도시에 포함된 충칭市는 중국 5위의 경제력과 3위의 소비력을 바탕으로 국제소비중심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최근에는 제1회 ‘충칭국제소비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했고, ‘첫 매장(首店)경제’ 육성과 ‘야간경제’ 소비지역 구축을 위해 노력 중

중국정부가 ‘국제소비중심도시’를 육성하게 된 배경

- 2019년 7월 중국 중앙정부의 14개 부처는 ‘국제소비중심도시 육성 및 건설에 관한 지도의견(關於培育建設國際消費中心城市的指導意見)’을 발표
 - 중국정부는 탄탄한 경제여건, 큰 소비잠재력, 높은 국제화 수준 등을 갖춘 도시를 국제소비중심도시로 지정해 건설하고 육성하여 주변 도시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향후 경제성장의 핵심 패러다임을 ‘투자’에서 ‘소비’로 바꾸려고 함
 - 국제소비중심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20여 개 대도시 지방정부가 신청했는데, 2021년 7월 중앙정부는 베이징(北京)시, 상하이(上海)시, 광저우(廣州)시, 텐진(天津)시, 충칭(重慶)시 등 5개 도시를 1차 국제소비중심도시로 선정
 - 이 중 광저우市를 제외하면 모두 4대 직할시¹⁾

충칭市의 경제와 소비가 주목받는 이유

- 충칭市는 내륙 도시 중 유일하게 국제소비중심도시로 선정됐는데, 그 이유는 막강한 경제력과 왕성한 소비력에 있음. 충칭市는 2022년 도시 봉쇄를 겪지 않은 대도시라는 장점도 있음
 - 2021년 충칭市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조 7,894억 위안(약 537조 원)으로, 중국 전체 도시 중 5위, 내륙 도시 중 1위를 차지. 충칭市의 2021년 GRDP 성장률은 중국 전체 성장률인 8.1%보다 높은 8.3%를 달성
 - 4위인 광저우市의 GRDP는 2조 8,231억 위안이고 GRDP 성장률은 8.1%를 기록. 2022년도 광저우市의 GRDP 성장률 목표치가 5.5% 이내인데 5.5% 이상으로

1) 중국 내 4대 직할시는 베이징市, 상하이市, 텐진市, 충칭市

설정한 충칭市보다 낮아, 충칭市가 역사상 처음으로 4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큼

- 2021년 충칭市의 소비 총액은 1조 3,967억 위안(약 269조 원)으로, 1조 8,079억 위안인 상하이市, 1조 4,867억 위안인 베이징市에 이어 3위를 차지
 - 충칭市의 소비 총액이 4년 연속 3위를 기록해 소비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활발함을 알 수 있음
- 2022년 충칭市는 국제소비중심도시로 선정된 5개 도시 중 유일하게 도시 봉쇄를 겪지 않고 있음
 - 상하이市가 전면 봉쇄를, 베이징市/톈진市/광저우市가 부분 봉쇄를 겪었지만, 충칭市에서는 어떠한 봉쇄 조치도 없었음

국제소비중심도시로 보폭을 넓히는 충칭市

- 2021년 7월 충칭市 정부는 ‘충칭市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사업 요점(重慶國際消費中心城市建設工作要點)’을 발표
- 충칭市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사업 요점의 6개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① 국제소비지역 구축: ►‘첫 매장(首店)경제’ 육성, ►춘탄(寸灘)국제신도시 건설, ►중심상권 업그레이드, ►‘야간경제’ 소비지역 구축, ►특색 소비 집결지역 구축
 - ② 소비 활성화를 위한 공급 확대: ►국내외 유명 브랜드 도입 추진, ►세계 소비품 물류체계 완비, ►‘충칭 우수제품’ 육성 및 발전, ►‘오래된 향토브랜드(老字號)’ 전수와 계승, 진흥, ►무형문화재 보호, ►특색 문화관광 소비 제고, ►특색 요식업 소비 제고, ►특색 체육 소비 제고, ►특색 교육 소비 제고, ►가사관리서비스 발전 추진, ►양로서비스 발전 촉진
 - ③ 정부, 기업 등 시장 주체를 육성해 국제소비의 융합 및 혁신 발전 추진: ►소매업의 혁신 및 경쟁력 제고 지원, ►상품시장 교역 플랫폼 발전 추진, ►물류체계 완비
 - ④ 소비 환경 개선, 국제 수준의 소비 서비스 품질 제고: ►교통체계 개선, ►국제화된 서비스 표준체계 완비, ►국제화된 서비스 인재 육성 촉진, ►소비자의 신용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완비
 - ⑤ 국제협력의 강화 및 국제소비 융합발전체계의 전문화: ►교류협력 플랫폼 완비, ►지역 간 협력 연계 강화, ►청두(成都)시와의 지역 소비 연계 추진
 - ⑥ 소비 전시회 개최 및 국제 수준의 소비 마케팅 강화: ►국제적인 행사·전시회 육성 및 도입, ►‘충칭소비’ 행사 브랜드 육성, ►도시 이미지 마케팅 홍보 강화
- 2022년 2월 충칭市 정부가 ‘충칭市 국제소비중심도시 육성 및 건설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충칭市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사업 요점’을 약간 축소한 내용

- 2022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소비 전시회 개최 및 국제 수준의 소비 마케팅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제1회 ‘충칭국제소비축제(重慶國際消費節)’를 대대적으로 개최
 - 충칭국제소비축제에서는 충칭市가 운영하는 시영(市營) 은행과 기업이 모든 시민들에게 나눠준 소비쿠폰을 이용하여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토록 했음
- 국제소비지역 구축을 위해 ‘첫 매장경제’ 육성과 ‘야간경제’ 소비지역 구축을 핵심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에 시동을 끊
 - ‘첫 매장’은 한 업계를 대표하는 브랜드 혹은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가 특정 도시를 선정해 오픈한 첫 매장이거나, 기존 매장을 혁신적으로 리모델링한 매장을 가리킴
 - 최근 중국에서는 ‘첫 매장’ 유치 건수가 지역경제의 활기를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됨
 - 특정 도시에 첫 매장을 열어 브랜드 가치와 지역 자원을 결합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
 - 충칭市는 2021년 ‘중국 야간경제 영향력 10대 도시’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야간 소비가 활성화된 도시
 - 전파력, 혁신력, 산업 규모, 상권 유동인구 등 야간경제의 4개 지표에서 모두 최상 위권을 차지



[사진] 2019년 충칭야간소비축제 개막식 (출처: 충칭市 정부)

<http://www.cq.chinanews.com.cn/news/2022/0615/39-35649.html>
<http://cs.cqworld.cn/newszheng/2022-06/202206141823.html>
http://www.cq.gov.cn/zwgk/zfxxgkml/zcjd_120614/bmjd/202202/t20220215_10396320.html
http://sww.cq.gov.cn/ztl_247/jsgjxfzxcz/zcwj/202107/t20210707_9457104_wap.html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세계 최대 규모의 ‘시각장애청소년관현악단’을 키워낸 특수학교

중국 충칭市 / 행재정·교육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충칭市특수교육학교의 ‘시각장애청소년관현악단’이 대회 주제가를 연주해 중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킴. 시각장애청소년관현악단은 충칭市특수교육 학교가 학생들에게 음악, 미술, 체육, 기술 등의 분야에서 반드시 자신만의 특기를 살린 1인 1기 (一人一技) 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2011년에 조직.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시각장애인관현악단 이자, 중국에서 최고 실력을 갖춘 시각장애인관현악단으로 명성이 높음

중국인들을 감동시킨 시각장애청소년관현악단

- 2022년 2월 4일에 개막된 2022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충칭市특수 교육학교(重慶市特殊教育中心)의 시각장애청소년관현악단(盲童管樂團)이 대회 주제 가인 ‘쉐화(雪花)’를 연주하여 중국인들을 감동시킴
 - 이날 참석한 시각장애청소년관현악단 단원은 모두 47명으로, 나이가 가장 어린 단원은 10살, 나이가 가장 많은 단원은 22살이었음
 - 시각장애청소년관현악단은 완벽한 연주와 퍼포먼스를 위해 동계올림픽 개막 20일 전부터 베이징市로 거처를 옮겨서, 강도 높은 훈련과 사전 준비를 했음



[사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대회 주제가를 연주하는 시각장애청소년관현악단 (출처: 충칭일보)

- 충칭市특수교육학교의 시각장애청소년관현악단은 2011년에 조직된 세계 최대 규모의 시각장애인관현악단으로, 중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춘 시각장애인 관현악단으로 명성이 높음
 - 그동안 충칭市에서 열린 각종 음악 공연과 행사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 장인 베이징市의 국가대극원(國家大劇院), 베이징음악원 등에서도 공연함. 또한 국가관현악단, 인민해방군관현악단 등 중국 유수의 관현악단과 합동 공연을 했음
 - 단원은 모두 충칭市특수교육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정식으로 악기를 배우거나 다룬 적이 없었음
 - 단원 중 가장 어린 10살의 우하오위(吳浩嶼)도 북을 맡아 2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 완벽한 관현악단원으로 거듭남. 가장 나이가 많고 졸업을 앞둔 텐슈원(田秀雲)은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어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뒤늦게 학교에 입학했지만, 현재는 수준 높은 실력을 갖춘 플루티스트(flutist)가 됐음

시각장애인에게 1인 1기(一人一技) 교육을 한 충칭市특수교육학교

- 충칭市특수교육학교는 충칭市 정부가 ‘2008~2012년 10대 공익성 프로젝트’의 하나로, 1억 5,000만 위안(약 290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3만㎡ 규모로 세운 충칭市 유일의 시각장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 충칭市특수교육학교는 1960년에 세워진 충칭市시각장애어린이학교가 전신(前身). 1998년에 충칭市시각장애인학교로 학교 이름을 바꾸면서 입학 대상자도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으로까지 확대. 2011년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면서 학교부지를 지금의 난안(南岸)구 다엔동(大岩洞)으로 옮기고, 학교 이름도 충칭市특수교육학교로 바꿈
 -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300여 명의 학생이 수학(修學) 중임. 충칭市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하는 시각장애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입학해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학교 내에는 기숙사가 완비되어 있어, 재학생 모두가 평일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함
 - ‘중국장애인보장법(中國殘疾人保障法)’에 따라 학생들은 전 교육과정의 학비와 평일 급식비가 무료이고, 기숙사비만 학부모가 부담
 - 정규직 교사는 60여 명이 재직 중이고, 수십 명의 비정규직 교사가 근무하고 있음
- 충칭市특수교육학교는 학생들에게 일반 학교의 교과 과정을 모두 이수토록 하면서, 모든 학생이 음악, 미술, 체육, 기술 등의 분야에서 반드시 자신만의 특기를 살린 1인 1기(一人一技) 교육을 받도록 함

- 시각장애청소년관현악단도 이러한 학교의 교육방침에 따라 음악을 선택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조직됨
 - 1인 1기(一人一技)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특출난 기예를 익혀 목표의식과 성취감을 갖도록 함
 - 시각장애청소년관현악단의 순조로운 교육을 위해 지난 11년 동안 34명의 음악 교사를 초빙해, 학생들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
- 일반 교과 과정 교육에도 전력을 기울여 지금까지 320여 명의 졸업생을 대학에 진학 시킴
 - 졸업생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기부 행사나 이벤트를 해마다 개최하는데, 이때 시각장애청소년관현악단이 참여해 큰 활약을 펼침



[사진] 드론으로 찍은 충청市특수교육학교의 전경 (출처: 신화통신)

<http://www.chinanews.com.cn/sh/shipin/cns/2022/06-17/news929484.s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29865887187940438>

<https://m.gmw.cn/baijia/2022-03/02/1302827442.html>

<https://h5.weishi.qq.com/weishi/feed/76E8utU1U1Nq8bM2y>

<https://baijiahao.baidu.com/s?id=1713388204653205106>

관광지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통합배출 관리 개선사업 시행

캐나다 캔모어市 / 환경·안전

대자연을 끼고 있는 관광지로 유명한 캔모어(Canmore)市는 음식물쓰레기가 곰과 같은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때문에 집 앞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상황. 이에 市는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마을의 지정된 장소로 가져가는 분리수거 체계와 분리수거 장소에 야생동물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개선 시범사업의 배경과 목적

- 캔모어(Canmore)市에서는 관광지 특성상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35% 이상이 음식물과 음식물로 오염된 포장지
 - 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이 쓰레기 저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
 -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퇴비화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30% 줄이고, 생활 폐기물 중 유기물 쓰레기인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퇴비화로의 전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통합배출 시범사업을 통해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지는 연간 1인당 0.60톤의 쓰레기가 2020년 0.45톤으로 줄어듦
-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통합배출 시범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매립지에서 분해되는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물 쓰레기에 의해 생성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함임
 - 야생동물에 대한 우려로 최근 캐나다 내 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가(自家) 음식물 퇴비화는 불가능
 - 이 시범사업은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모두 통합 처리하는 데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우려에 대한 대응임
 - 지역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市의 6개 주요 시정전략 중 하나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 주민, 시의회, 기타 마을 공동체 등의 협력과 의견 수렴이 시범사업의 핵심
 - 지역 주민 그룹을 지정하여 국내외 산악 지역에 위치한 마을의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분리수거에 대한 모범 사례를 지역사회에 도입하고 교육
 - 밴쿠버市의 성공적인 'Food Is Not Garbage'(음식은 쓰레기가 아니다)라는 마케팅 캠페인을 벤치마킹함
 - 밴쿠버市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분리수거되지 않았던 기존 배출 방식을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퇴비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을 적극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여 음식물 분리수거가 성공적으로 정착됨
 - 지역에서 자체 선발한 예술 및 이벤트팀이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쓰레기통을 디자인하고,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 페인팅(painting) 콘테스트'를 기획하여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임
 - 이 콘테스트 수상작은 주변 산봉우리를 테마로 하여 모자이크 형식의 그림을 쓰레기통에 형상화한 작품임



[사진] 지역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

(출처: <https://www.rmotoday.com/canmore/neighbourhood-composting-bin-unveiled-canmore-1672521>)

◦ 시범사업의 성과

- 이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했으며, 2021년 현재 하루에 약 800kg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전환하고 있으며, 전환율은 10%를 초과
 -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로 수거 용량이 부담이 될 정도로 높은 호응도를 보임
 - 프로그램 시작 전에 주민에게 배포했던 주방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부족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참여도를 보임
- 사업비는 기존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활용
 - 단, 주민들은 1년에 28달러를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납부
- 시범사업은 일반 주거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상업용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집하(集荷) 인프라 프로젝트도 진행해 2020년 가을경에 상업용 음식물쓰레기도 처리를 시작



[그림] 캔모어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홍보 메시지

<https://canmore.ca/municipal-services/waste-management-recycling/residential-food-waste-collection>

<https://www.rmotoday.com/canmore/neighbourhood-composting-bin-unveiled-canmore-1672521>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530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2년 8월 8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견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